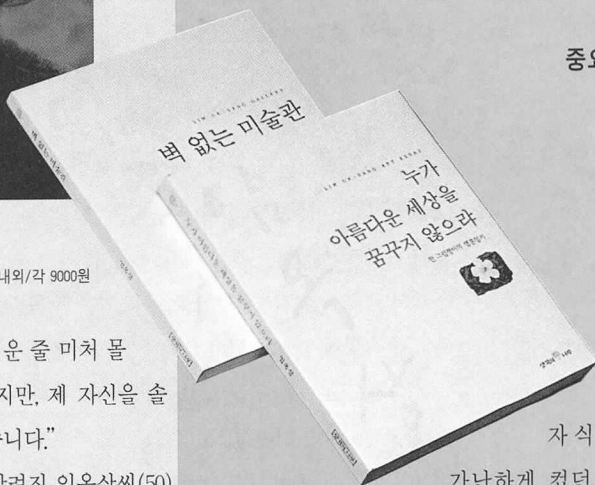


임옥상씨

생각의나무/A5변형/300면 내외/각 9000원

예술과 대중의 벽 허물어 온 한 화가의 내면풍경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외 펴낸 임옥상씨



“책을 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민중미술 작가’로 널리 알려진 임옥상씨(50)가 지천명의 나이에 첫 책을 낸 소감이다. 그는 최근 산문집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와 화집 《벽 없는 미술관》(이상 생각의나무)을 나란히 펴냈다.

반세기 삶의 흔적과 예술혼 담겨

《누가 아름다운...》은 임씨가 살아온 반세기 삶의 흔적과 작품활동이 고스란히 담긴 산문집이다. 이 책은 그가 그동안 써온 그림 작업 일기를 바탕으로 엮었다. 그는 30여년 동안 작품 구상과 그 전개 과정, 결과, 작가로서의 자평, 순간순간의 단상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왔다.

“사람들이 일기를 보더니 왜 책을 내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출판사에서 여러번 제의도 받았죠. 원래 60대 후반에나 책을 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꿨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제 자신의 성숙과 변화를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나를 ‘민중미술’ 작가로 낙인찍어 편견에 가득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알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가 스스로 ‘민중미술 작가’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민중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그와 동시에 그는 “가슴이 따뜻한 부드러운 화가”다. 그는 이 점을 말하고 싶었다. 이 책에는 그가 ‘새끼 마누라’의

자식으로 가난하게 컸던 어린 시절, 이혼과 새로운 여인과의 만남 등 그의 내밀한 이야기부터, 예술론과 현실 인식까지 그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돼 있다.

《벽 없는...》은 그가 지금까지 그려온 작품 가운데 대표작을 골라 시대별로 나눠 실었다. 작품마다 해설과 현실에 대한 그의 단상을 덧붙였다. 예술과 시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점에서 《벽 없는...》과 《누가 아름다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림의 ‘언어’가 많은지, 언어의 ‘그림’이 많은지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대중과의 소통을 화두로 삼아

그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미술이 대중과 유리됐다는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미술이 ‘영원’ ‘초월’ 같은 주제를 추구하면서 현실에서 도피해버린 까닭입니다. 그림이 대중과 유리되면 화가가 설 자리가 없어버리는데 말이죠.”

따라서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한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 《현실과 발언》전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화두다.

“예술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작가 역시 당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거든요. 작품보다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무릇 예술 행위는 작품 활동과 현실과의 싸움.

“예술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작가 역시 당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거든요. 작품보다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무릇 예술 행위는 작품 활동과 현실과의 싸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도 이런 생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근본적인 입장전환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을 따름이다.

“지난해 인사동에서 ‘당신도 예술가’ 이벤트를 벌이면서 길에서 대중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체를 찾은 셈이죠. 이제는 미술이 전시장에서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대중과 만나야 합니다.”

‘당신도 예술가’는 매주 일요일마다 대중들이 참여해 작품 활동을 하는 길거리 이벤트다. 막상 길거리에 나서니 그가 화가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처음엔 ‘거리의 약장수’처럼 쳐다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젠 고정 팬들도 생기고 자원봉사자도 여럿 얻었다. 대중들에게서 많은 예술적 영감을 얻기도 한다.

그는 11월 29일부터 열흘 동안 가나아트화랑에서 열릴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전시회의 주제는 ‘흙과 쇠의 상상’. 흙은 그가 계속 다뤄왔던 자연의 이미지고, 쇠는 그가 매항리에서 영감을 얻은 문명의 이미지다. 자연과 문명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주제다. - 김정은 기자